

- [교회 표어] ·은혜충만 · 진리충만
- [교회 3대 목표]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 [성도생활의 목표]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가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율전,전주요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등포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경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F:031-449-1793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교회 학교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 ▶대상: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 · 고등부 학생 누구나
- ▶장소: 각자 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 ▶방법: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 · 신앙 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 ▶일시(3차):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평일- 오후 7시~ 10시/3시간, 수요일- 9시~11시/2시간(이후 12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 ▶모집기간: 상시 모집 (신청자에게 줄링크 개별공지)
- ▶문의: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독서실' 담당자 ☎ 010-5395-0939, 010-9175-2356)
- ▶신청방법: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②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봉사자 모집

- ▶대상: 위와 같이 중 · 고등부 학생들의 자율학습 지도가 가능한 성도님
- ▶신청방법: 위와 동일한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QR 코드 :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별양동) T.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굴1길 25(송동) T.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4길 5 T.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당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정기동) T.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이충동) T.031-662-3731
- 인중: 평택시 인중읍 송달1로 144 T.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편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령로 220(수서동) T.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미루들길 168 T.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호로 55(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재운동) T.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호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운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 2(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은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5월 7일 [매주발행] / 발행인: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2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곧센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해주십니다.”

- 황은지 -

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비 1번'이라는 감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순전히 저를 위해 섭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주중에도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주중예배에 꼬박 꼬박 참석하여 설교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사 발표날, 저는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바라던 기쁨의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는데, 저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과대표, 총학생회 집행위원, 학회장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 동분서주 활동하면서 주님의 일보다 학교의 일을 더 좋아하고 그런 일에 매우 만족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입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마음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노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안일하고 정신적으로 나타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저의 생활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삶의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을 잊은 채 저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즐겁지 않고 편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진리와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므로 말씀을 들어도 이해와 감동이 부족했습니다.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생활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나'였고, 청년부 모임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다른 청년들의 눈치를 보며 먼저 자리를 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볼 때 어쩌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저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한 형제로부터 청년부 모임에 꼭 나오라고 권면하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크게 찢릴 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들은 권면의 말은 그동안 다른 청년들에게 들었던 권면의 말과는 다르게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며 저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상태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성도로서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정성껏 예배 드리며 청년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부끄러운 실상을 마주하고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스바냐 3:17)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안에서 새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를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처럼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자 생활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먼저는 감사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밖에서나 이제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어떠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음'의 이 놀라운 선물을 저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가서 낯선 사람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강한 '153아카데미' 교육은 저를 더 놀라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의 기반 위에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 위한 심령한 지식을 쌓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던 제가 이제는 관심을 갖는 성경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동되고 감화되어 더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하나 둘,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제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방황할 때 신실한 제 막내 여동생이 이를 매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공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동생은 전에도 제 눈에 예뻐지만 그래서 더 예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고 도움을 준 모두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전도대상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지 사모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밝은 빛을 비취 주시고 언제나 저에게 귀 기울이시며 저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맡겨드리는 생활'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참 사랑, 하나님!" "나의 유일한 참 기쁨, 하나님!" "나의 유일한 참 자랑, 하나님!"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스바냐 3:17)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14장 24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14장 24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222장(새찬송 235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2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이 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변안전을 염려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축출하기 위함인지 그 속셈을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왕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정보는 아닙니다. 헤롯은 자신이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지탄한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참수형을 집행한 위인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공포하였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현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알려준 위협적인 정보에 대하여 냉랭하고 단호한 반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여우라는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빗대어 헤롯의 교활하고 간교한 성격을 형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헤롯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사흘째 되는 날이면 이 일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의도한 대로 진행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사흘이란 지금과 다음 날 그리고 예정된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박해를 받은 선지자들의 대다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헤롯의 위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도성과 거주민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탐욕과 교만으로 불순중하며 우상숭배와 선지자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친히 세상이 오셔서 친히 천국복음을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 같음으로 형용하셨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불탄 닭장으로 가보니 둥그런 잿더미가 보여서 발길로 툭 찼더니 거기서 병아리들이 삐야 삐야 소리 내며 나왔습니다. 그 잿더미는 어미 닭이 불탄 것이었습니다. 불길에 닭장 울타리를 태우며 다가오니 어미 닭이 새끼들을 불러 자기 날개 아래에 모아서 불길이 지나가기까지 보호하고 자신은 불타 죽었던 것입니다. 병아리들은 어미 닭이 부르니 달려가서 활짝 편 날개 안으로 피신하였지만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상에 대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고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마 13:15)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날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에덴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히브리어 1장에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1:2)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세주에게로 나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놓았으나 원치 않는 자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이르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7년 대환난 때에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을 것이며 이들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으며 찬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볼 때에는 구원의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거의 2천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옛보고 이르러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냐 너희가 잠잠하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자의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고창병 환자가 그 곳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을 보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를 간파한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한 규정이 없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금한 법은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세부 조항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그 환자를 고쳐 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과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서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서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왔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창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아직 손님들이 식탁에 앉기 전에 있었습니다. 초청받아 온 사람들 중에는 식물의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 한 예를 들어 귀중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초청받아 간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 이상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잔치의 상석을 차지하는 것은 손님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량이 달려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각 사람이 받게 되는 영광과 면류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결정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날을 생각하면 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값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값은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값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피자 대접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식사 초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대상과 동기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입니다. 궁핍하거나 병약하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경우는 값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장려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발을 씻으며 불가하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시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고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생활과 육신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 기심이 없이 진정으로 대접하기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다면 그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차 메시야 왕국에서 있을 잔치에 자신들은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자만과 확신이 근거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까. 잔치할 시간이 되어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발을 씻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으니 미안하오.”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다섯 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려 가는 길이니 용서하십시오.” 하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결혼한 직후라서 가지 못하겠소.” 하였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그대로 주인에게 보고했더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가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종이 그대로 행한 후 주인에게 “주인이여, 분부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길과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풍성한함과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이 잔치의 실상을 알게 되면 다시는 세상의 잔치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소원과 열심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큰 잔치’로 인도하려는 소원과 열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의 실상이 어떠한가,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많은 사람이 초청된 ‘큰 잔치’입니다. 잔치의 규모와 내용과 성격을 볼 때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잔치에 대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배설하신 큰 잔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써 완전정결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즉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할 때 “다 이루었다”(요 19:30) 하시며 운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것이 매우 많습니다. ① 죄 사함 받습니다. ② 의롭게 됩니다. ③ 새 생명을 얻습니다. ④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⑤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치심, 인도하심, 도우심, 위로하심, 치료하심을 받습니다. ⑥ 부활하게 됩니다. ⑦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 잔치는 ‘많은 사람이’ 초청된 잔치입니다. 인종, 연령, 신분, 혈통, 외모, 능력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참여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둘째, 예비된 큰 잔치에 초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발을 씻으므로 불가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나라보다 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저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골 3:1-3) 하였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해잠수 특수훈련 경력자인 친구 목사가 들려준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입니다. 산소통을 메고 잠수하면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산소 소모량이 많아져서 산소통의 사용시간이 짧아져 20미터는 30분, 30미터는 20분, 50미터는 5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기에 빨간 불이 켜지면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았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해너들은 깊이 내려가면 전복이 자갈처럼 날려 있어서 망태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조금 더 잠으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산소부족 상태가 되어 죽는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므로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며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도저히 교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번진하여 다른 일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을 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공동묘지에 는 세상일에 분주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던 사람들도 그 곳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니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 4:13-15) 하였습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핑계를 댑니다.

이상에 열거된 세 종류의 핑계는 모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땅을 먼저 사고 나서 그 후에 그 땅이 어떠한 지 보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를 사는 거래가 이미 끝난 다음에 그 소를 시험하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하였다는 것이 초대받은 잔치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속담처럼 온갖 핑계거리로 복된 잔치로의 초청을 거절해 버리는 심히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예비된 큰 잔치에 초청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또 보고하기를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기를 “큰길과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세속적인 일에 바빠집니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천국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윤식적인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합니다. ‘길과 산간 마을에 있는 자’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고독하고 소외된 사람들, 번두리 사람들, 무명 인사들입니다. 일단 이러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진정 유명 인사가 되고, 진정 지성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법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너희가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고전 1:26-28) 하였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강구에 따서는 강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생일 때 친구와 함께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어린이들의 집을 심방하였는데 한 집에 가니 어린이의 삼촌이 있는 데 고시공부 준비하고 있나. 복음을 잠시 전한 다음 오늘이 기쁘고 예비일이니 함께 교회로 가지자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마음 준비가 안 되어서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일 저녁, 우리는 그분을 강권하여서라도 교회로 모셔오기로 작심하고 찾아갔습니다. 왜 모셨느냐고 하기에 지난번 약속을 이행하시도록 모셔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불편하니 갈 수 없다고 하기에 우리가 업고 가겠다고 하며 마루에 계신 그 분을 우리 두 사람이 나서서 떠밀며 업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당혹한 음성으로 학생들과의 약속이고 또 조카아이들 위해서 오늘 한 번만 갈 터이니 자기를 내려놓고 신발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날 예배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참 신자가 되었고 몇 해를 지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언젠가 제가 포항 교회연합회 주회 부총회를 인도할 때 집회 장소인 교회에서 그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신자로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반자리가 있으면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잔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큰 잔치로 인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마련하신 큰 잔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한량없이 즐겁고 풍성한 큰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비된 큰 잔치의 즐거움과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큰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